

# ‘서편제보성소리축제’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5년 연속 대상

## 보성군, 축제 글로벌 명품 부문 대상... 판소리 본고장 보성의 문화 경쟁력 입증

보성군 대표 문화예술 축제인 서편제보성소리축제가 '제14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에서 축제 글로벌 명품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5년 연속 대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은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최하는 국내 권위 있는 축제 시상으로, 콘텐츠 경쟁력과 운영 완성도, 관광객 만족도, 지역경제 기여도, 글로벌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축제를 선정한다.

서편제보성소리축제는 판소리 서편제의 본고장이라는 보성의 문화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 명창 공연, 전통 예술 체험, 군민 참여형 문화 행

사 등을 운영하며 전통 예술의 계승과 대중화를 동시에 이끌어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권위 있는 전국 판소리 경연 운영과 완성도 높은 공연 콘텐츠,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전통 예술 축제로서의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연전통예술 경연대회 축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한 바 있어, 콘텐츠 완성도와 운영 역량, 관람객 만족도 측면에서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군 관계자는 "5년 연속 대상 수상은 전통 예술을 지켜온 국악인과 군민, 축제 관



계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서편제보성소리축제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찾는 국악 대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김은기 기자

진도군은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2026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 사업은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고 관광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 일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여행사는 외국인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단체관광객 ▲일반단체는 10인 이상의

## 진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본격 시행

### 지원 금액 대폭 확대, 1인당 최대 3만 원(도서 지역은 추가 지원)

단체관광객 ▲학교 등은 20명 이상의 수학여행단을 유치해, 관내 숙박업소와 음식점 이용, 관광지 방문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진도군이 장려금(인센티브)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해 1인

당 최대 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섬 지역인 조도, 관매도에 방문하면 조도는 2천 원, 관매도는 5천 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여행사뿐만 아니라 일반단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요건을 완화해 많은 여행사와 단체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축제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관광지와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를 함께 이용하는 관광객에 대한 지원 시책으로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라며, "관광객들이 진도에 체류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머무르는 관광'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 순천시의 첫 봄을 알리는 '제8회 매곡동 탐매축제' 개최 봄계 피어난 흥매화 아래, 문화의 봄이 시작된다

순천시가 오는 3월 7일 토요일 탐매희망센터 일원에서 '흥매화가 알리는 봄, 원도심에서 시작되는 문화'를 주제로 '제8회 매곡동 탐매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피는 흥매화로 이름난 매곡동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봄계 피어난 흥매화 아래 문화의 봄이 시작되는 축제에 기획했다. 원도심에서 펼쳐지는 감각적인 콘텐츠와 힐링 공간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머물며 즐기는 축제로 한 단계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순천시 첫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탐매축제는 '봄계 피어난 흥매화 아래, 문화의 봄이 시작되는 탐매축제'를 콘셉트로 원도심 매곡동의 지역 특색을 살린 세대공감 문화콘텐츠를 선보인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통해 오감으로 봄기운을 느끼는 '감각' ▲흥매화와 어울러져 '감동'을 더할 공연 ▲흥매화 아래 잠시 머물며 쉬고 여유를 누릴 수 있는 힐링 공간을 통한 '치유'를 담아, 축제를 찾



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보고, 듣고, 느끼며 즐기는 봄날의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에서는 흥매화 연계 문화 프로그램으로 캘리그라피, 매실 활용 전시 등 다양한 체험 부스를 비롯해 스탬프 투어, 지역 상점 및 공방과 연계한 플라마켓, 먹거리 부스, 각종 부대행사 등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방문객의 발길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순천/정성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 카메라 뉴스



## 구례군, 2026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개최

전남 구례군은 지난 25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2026년 농촌진흥 시범 및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구례군 농업산학협동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에는 심의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진흥 시범사업 4개분야(청년농업인 육성, 농촌자원개발, 귀농귀촌인 유치지원, 새기술 보급) 22개 사업 총 21억 3,600만 원에 대해 대상자를 심의·확정했다. 앞서 군은 1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신청 공고했으며, 읍면 이장회의와 읍면 농업인 상담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농업인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적정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청 마감 이후에는 사업별 담당자들이 현장을 방문해 사업 여건 등을 검토하고 적합한 대상자들을 심의회에 상정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 장흥군, 덕촌지구 태양광발전 집적화단지 주민공청회

장흥군은 지난 24일 회진면 다목적복합지구관에서 '장흥군 덕촌지구 태양광발전 집적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은 장흥군 대덕읍 가학리와 회진면 진목리 일원에서 추진된다. 약 100만 평 부지에 4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집적·체계화해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한편, 송전선로와 접속설비 등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구축해 안정적인 전력 생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발전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주민이익공유제'를 도입해 주민 지분 참여, 발전 수익 배당, 지역발전 기금 조성, 주민 우선 고용 등 다양한 상생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흥군 제공



## 무안군 드림스타트, 가족 체험 프로그램 운영

무안군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과 양육자를 대상으로 가족 체험 프로그램 '우리 가족의 사랑 굽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 간 소통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해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가족 간 유대감 형성이 필요한 아동과 양육자 14가구다.

교육은 24일과 27일 이틀간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오전에는 무안북합문화센터, 오후에는 남양청소년문화의 집에서 디저트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케이크와 쿠키 만들기 체험을 실시한다.

참여 아동은 "가족과 함께 만들어 더 즐거웠다"며 "다음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무안군 제공

Goheung Spaceship Terminal

지구문명에서  
우주문명으로

# 제16회 고흥 우주항공축제

## 2026.5.2. (토) - 5.5. (화)

###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일원

주최/주관 고흥군 고흥군축제위원회